

미국 금리동결과 향후 전망

미국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

□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)는 3월 15~16일(현지시간)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.25~0.5%로 동결함

- 금년중 기준금리 인상횟수를 2회로 예상(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4회)하며 금리 인상속도가 완만해질 것임을 시사
- FOMC 위원중 1명만이 0.25% 인상에 찬성

□ 금융시장 상황(뉴욕 오후 6시 기준)

- 주가 : 다우 0.43% 상승, S&P500 0.58% 상승, EURO STOXX 0.17% 하락
- 10년물 국채 : 1.9699 → 1.9081
- 달러/유로 : 1.1109 → 1.1213
- 엔/달러 : 113.18 → 112.77
- 헤알화/달러 : 3.7668 → 3.7425
- 원화 NDF(1개월) : 1196.75 → 1180.50

미국 금리인상 시기 전망

□ 미 연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4월보다는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

- “글로벌 경제금융환경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”는 문구를 고려할 때 4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

□ 금융시장에서도 미국의 고용 및 소비지표의 개선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(2%)에 근접하고 있음을 근거로 6월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음

- 뉴욕타임즈(3.14일)는 미국경제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연기(delayed)된 것이지 경로이탈(derailed)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금리인상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망한 바 있음
- 경제전문가들 대상으로 파이낸셜타임즈(3.13일)와 블룸버그(3.10일)에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월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Financial Times(3.16일)에 따르면 금융경제전문가들은 이번 FOMC의 동결발표에 대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속도 지연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
- 주요 국제투자은행(IB)들도 향후 금리인상 시기는 6월, 연내 인상횟수는 2회로 보는 시각이 우세

□ 그러나 일부에서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해소여부에 따라 금리인상 시기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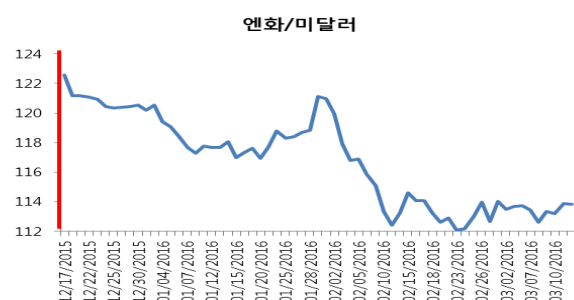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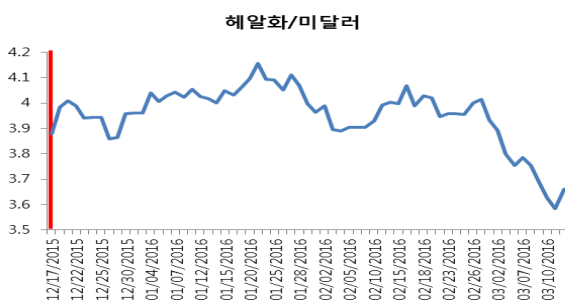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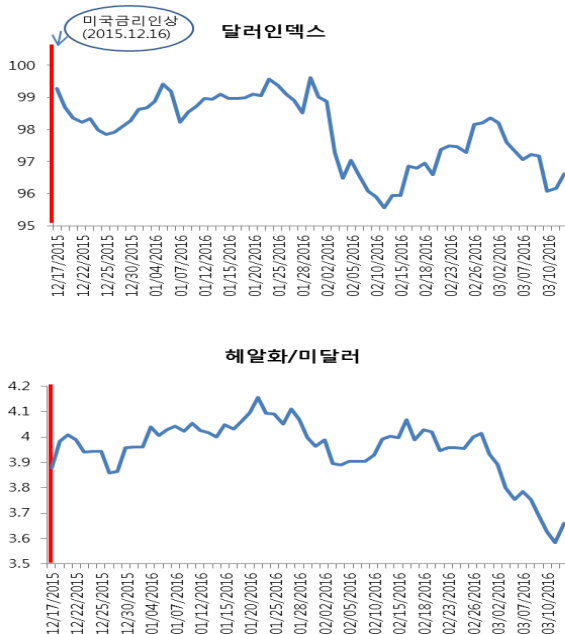
- 미 연준의 Lael Brainard 이사는 취약한 세계경제 상황이 미국 경제 리스크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며, 지금까지 신중한 금리정책을 통해 구축한 경기개선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

주요국 환율전망

□ 미 달러화가치는 과거 금리인상 사이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금리인상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국 통화는 현 수준보다 다소 강세로 갈 전망

- 미달러인덱스는 지난해 12월 미국 금리인상 이후 최근(3.15일 기준)까지 2.6% 절하
- 중국 위안화 및 일본 엔화는 당분간 절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
- 한편 브라질, 말레이시아 등 주요 자원수출국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인상 연기,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12월 미국 금리인상 이후 각각 5.6%, 4.8% 절상되었는데 당분간 원자재가격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
주요국 환율추이



자료 : Bloomberg

국내금리 전망

□ 국내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악화된 상태에서 ECB 및 일본 은행의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 실시, 미연준의 금리인상시기 지연으로 국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

- 한국의 국채(3년물)과 기준금리(한국은행)의 격차가 2015.12.1일 0.314%p에서 2016.3.16일 0.068%p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

원/달러 환율 전망

□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절상요인(대외요인)과 절하요인(대내요인)이 혼재되어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현수준보다 소폭 절상될 가능성이 높음

- 대외요인 : 미국 금리인상 연기로 인한 신흥국통화 절상이 원화 절상요인 작용
- 대내요인 : 국내 금리인하 전망은 원화 절하요인으로 작용

담당 : 권민지 책임연구원
Tel. 051) 620-3187